

학교 석면 해체·제거 '철저하게'

전북교육청, 외부전문가 등 참여 민관협의회 개최... 여름방학 도내 11교 공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댄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는 2024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 체

제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도교육청 시설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주무관 등 당연직 3명과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학교 민관 합동점검

현황 보고 △2020년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 교육 계획 수립 △ 여름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학교 점검·관리방안 논의 △기타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결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름방학에는 도내 11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된다. 대상 학교는 전북여고, 군산 서수초, 익산 왕궁초, 익산초, 용안중, 정읍 수성초, 김제 화물초, 만경중, 덕암고, 장수 계남중, 임실 오수초 등이다.

/장은성 기자



박경숙 센터장(Aquamaine 아트센터)이 전북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예능계열 취업률 향상에 도움”

박경숙 센터장, 전북대 발전기금 기탁

박경숙 센터장(Aquamaine 아트센터)이 전북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22일 박 센터장을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등을 전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전북대 특별사업단인 예술교육 산학관 커풀링사업단 부단장을 맡아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산·학·관 유기적 협력을 통한 통합 예술교육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과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1세기형 우수 통합예술 교육사 인력양성과 문화예술 교육사 등을 양성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박경숙 센터장은 “예능계열 학생들이 취업난에 합류해 하는 상황에서 활발한 예술교육커풀링사업 활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작게나마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평생교육체제 활성화”

전주대미래융합대학 워크숍

전주대 미래융합대학(학장 한동승)은 지난 21일 전라북도의 평생교육체제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미래융합대학 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기존의 학령기 위주 교육과정에서 확장해 평생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내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래융합대학을 신설,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래융합대학의 4개 학과(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의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네트워크 활용, 재직자를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연계 취업 협약 등의 구체적인 학사구조와 교육과정 등이 논의됐다.

또한,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무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객원교수를 신규로 초빙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 교원은 전주패티마신협 양춘계 이사장(창업경영금융학과), (주)리퓨터 김명자 대표이사(농생명ICT학과), (주)리인포 서암석 대표이사(미래기술융합공학과)로 세 교원 모두 실무교육에서 25년 이상 활동하며 직원교육을 해 온 베테랑으로 학과의 실무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한동승 학장은 “전주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은 능숙시범을 치르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며, 토요일 하루만 수업(주중 온라인수업)을 진행해 직장을 다니는 성인학습자들도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모의 클라우드 펀딩 통해 실제 투자전략 배웠어요”

전북대 창업지원단,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모의 투자 교육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22일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교육컨설팅 및 창업 인큐베이팅 전문 기업인 (주)인트윈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전북대 예비창업패키지 모의 클라우드 펀딩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10명의 창업자들이 참여한 이번 모의 클라우드 펀딩에 131명의 모의 투자자가 참여해 3억9,930만 원 펀딩 금액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모의 클라우드펀딩이란 비용을 쓰는 실체가 아닌 가상으로 진행되는 펀딩을 의미한다. 참여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안 실제와 같은 펀딩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했고,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실무적 이해뿐 아니라 실제 투자 프로세스에 필요한 전략 설계, 비즈니스 모델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전북대 창업지원단으로부터 모의 클라우드펀딩 기획안과 카드뉴스 제작, 스토리페이지 디자인과 같은 콘텐츠 제작도 받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창업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펀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며 “덕분에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떤 방

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우리대학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이 가진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창업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주관 기관인 (주)인트윈은 교육컨설팅 및 창업 인큐베이팅 전문 회사로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주로 기획,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초등 성장평가 활성화 지원

도교육청 실행연수 강사단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초등 성장평가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실행연수 강사단 역량 강화'에 나섰다.

23일 오후 4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실행연수 강사단, 성장평가지원단,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담당자 등 14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성장평가(과정중심평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평가정책 안내 및 우수 사례 공유로 초등 성장평가제도의 학교 정착을 지원하고 초등 성장평가(과정중심평가) 지원강사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대 김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 특강과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 실습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학생상담센터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방학 중 재학생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정서적 문제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재학생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상담심리'와 '즐거로운 대학생 생활-감성교실'로, 운영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상담심리'는 재학생의 심리 검사 실시·해석, MBTI, ICSI 등의 성격검사를 통해 자기탐색 및 타인 이해 증진 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즐거로운 대학생 생활-감성교실'은 스트레스 구체화, 형상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직접 마주해 인지시키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을 수립 해소하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